

히브리서 소개

매리언 마예 톰슨(Marianne Meye Thompson) 박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지도자이자 인도자임을 상기시켜 주는 히브리서를 소개합니다.

문제는 히브리서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긴 글을 쓰다가 뭉기세탁은 빼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리언 마예 톰슨(Marianne Meye Thompson) 박사입니다. George Ladd 의 신약학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신약학 학자의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마도 신약에서 가장 간과된 성경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신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성경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편지인지, 긴 설교인지, 권고인지, 아니면 무언가에 대한 논쟁인지 그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다양한 것 같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구절도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11 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길게 나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과 선지자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들에게 믿음의 좋은 예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목록을 만들고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음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둡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한 선구자이시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선구자로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아무도 위엄과 지위와 명예에서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능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먼저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확장된 논쟁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더 낮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낮고, 여호수아보다 낮습니다. 모든 제사장과 그들의 희생물보다 낮습니다. 희생물이 바쳐진 성소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목표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 목표는 하나님과의 삶입니다. 믿음의 선구자이자 완성자인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최종 목적지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선구자이자 완성자인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영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들은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향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 것을 향해 갑니다. 그들은 또한 신실함의 본보기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 할 때에도 계속 나아갑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우리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앞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간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 걸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신실한 인도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이끄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서 고전적이고 본질적인 권고 중 하나를 읽겠습니다. 12 장 1 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